Catholic
정릉주보

제1073호
2019년 6월 2일(다해)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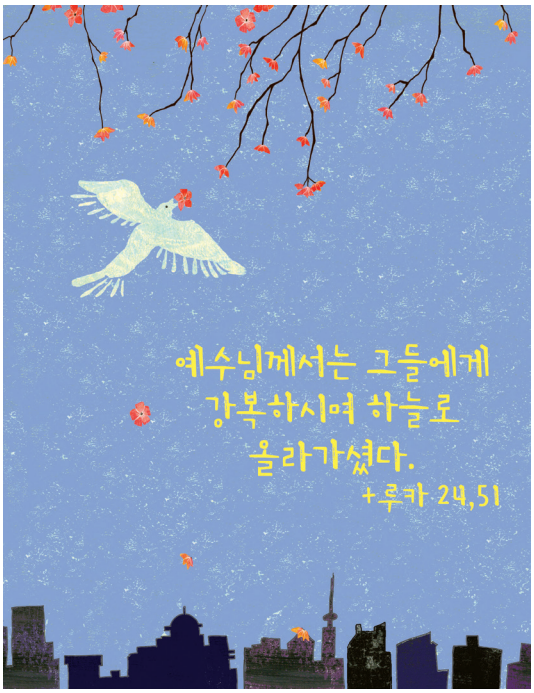

그림 | **김 로사**

입당송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 24,46-53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여의도 성당 모범 청년
정상경 요셉

한 단체에서 꾸준히 봉사한
청년 인터뷰

예수님을 닮은 성가정의 모습

긴 냉담 생활을 정리하고 청년 전례단에 입단하여 봉사를 하며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큰 의미를 두었던 것은 '결혼하면 청년 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청년들의 고정관념을 깬 것입니다. 본당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저희 부부는 신앙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범적인 성가정의 모습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례단은 물론이고 청년 레지오, 청년 울뜨레야, 청년 야구단 그리고 한동안 본당에 없었던 청년 성서모임을 다시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 공부, 취미 생활 모두 성당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과 성당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큰 행복이자 은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했고, 함께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사, 나의 예루살렘

김지혜 안나
왕십리 성당

2014년이었습니다. 전례 단원으로서 청년단체 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 독서대에 올랐던 날을 기억합니다. 손도, 다리도, 목소리도 덜덜 떨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어엿한 전례 봉사자로 한몫을 하게 되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미사가 기다려졌습니다. 성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날 듯이 가벼웠습니다. 주일이 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2019년입니다. 저는 여전히 전례단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월초 단원들과 전례 일정을 계획할 때면 어느 주에 미사를 '쉴까' 궁리합니다. 해설이나 독서를 맡은 날에도 성당으로 가는 길이 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단원 회합도 꼭 오 분, 십 분씩 지각합니다. 매일 미사를 펼치고 오늘 봉독해야 할 부분을 한두 번 읽어봅니다. 삼십 분 전에 연습하면 다행입니다. 아슬아슬한 시간에 헐레벌떡 성전으로 뛰어 들어와 눈으로 대충 훑고 독서대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실수가 나옵니다. 미사에 집중하지 못해 괜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누군가는 다른 도시로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난과 죽음마저도 승리를 위해 계획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기억이 남아있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미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맛있는 치킨도 먹다 보면 질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도 오래 만나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조차 어떤 날은 남보다 더 야속합니다. 하지만 치킨을 아예 끊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구와 잠시 싸웠다고 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에게 미사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제가 즐겁게 돌아오건, 터덜터덜 돌아오건 늘 같은 따스함으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주님은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 속에, 독서를 실수한 저를 도닥이는 동료 단원의 위로 속에 계십니다. 신자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신부님의 유머 속에,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수녀님의 맑은 미소 속에도 계십니다. 눈치채지 못해도,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미사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릴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간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본당소식 _ 이문동 성당

성모 성월 5월에 저희 이문동성당 청년 레지오는 신내동 꽃동네 요양원으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의 거동을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힘없고 아픈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히 섬김받으시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멘.

[이소이 그라시아]

『말씀가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길

designed by [Vectors Market] from Flaticon

승천

40일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의 시간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사도행전 1,3)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완수하시고 당신의 본디 자리,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쪽으로 올라가셨음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 구원이 결정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 주신 것

오늘의 말씀 루카 복음 24,46-53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성령

높은 데서 오는 힘
(루카 24,49)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루카 24,49)

사도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사도 2,1-3)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복음 선포에 나설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성전

루카 복음의 첫 장면(1,5-2,37)도 마지막 장면(24,52-53)도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 24,53)

"찬미"
교회가 하느님께 축복을 빌며 감사에 넘치는 찬양을 표현

내 마음 밭에 다가온 말씀

"높은 데서 오는 힘"

지난 8주간 기쁜 부활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번 주간은 승천 대축일이고 다음 주간은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해 동안 특별하지 않은,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그저 그런 주간은 없는 듯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높은 데서 오는 힘'을 보내 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특별할 수 있던 많은 날과 감사할 수 있었던 많은 하루, 성령께서 가히 임하신 순간들을 '세상 일'에 치인다는 핑계로 너무 많이 흘려보낸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최유진 스텔라]

말씀 심기

- 당신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행복의 시작은 기도

이진아 안젤라 / 뉴질랜드 해밀턴 한인성당

한국의 계절과 정반대인 뉴질랜드는 지금 가을을 맞고 있다.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다 문득 지난 봄 다녀온 피정 때의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전 신자들과 함께 뉴질랜드 북섬의 최대 관광지인 로토루아와 타우포 사이에 위치한 타이번 수녀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곳 수녀원에 다녀왔던 지인들 모두 하나 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이 '그곳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절로 기도가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한 번 꼭 가보고 싶었던 수녀원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발길을 내딛었던 기억이 난다.

차를 타고 해밀턴에서 약 1시간 40여분을 달려 수녀원으로 가는 길,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유난히 맑은 날씨 때문인지, 하늘도 풍경도 평소보다 훨씬 밝고 빛나는 것 같았다.

수녀원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것은 어여쁜 꽃들 사이에 둘러싸인 성모님이었다. 알록달록 다양한 꽃들 사이로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신 성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뉴질랜드 마오리 문양이 새겨진 작은 성당으로 들어가 미사를 드렸다.

성당 뒤편에 있는 작은 동산엔 언덕을 따라 십자가의 길 14처가 설치돼 있었다. 각 처에서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다. 언덕 위,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이지 말이 필요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는 지인들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만 같았다.

식사 전, 신부님의 주도하에 우리는 짧은 묵상의 시간을 보냈는데, 길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이었다.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는 햇살과, 살랑살랑 몸을 스치는 바람의 숨결,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아무것도 기도 드리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 지고,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피정의 의미는, 정신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 자신을 다시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한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언제 어디서든, 나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나를 찾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덤덤하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다 보면, 행복한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다. 정말 별 것 아닌 것들에도 말이다.

직장인을 위한 금요미사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727-2078, 2080 사목국 직장사목팀

가톨릭 코이노니아 주말

내용 부부관계 성장을 위한 워크숍-갈등의 긍정적 해결 방법, 소통, 나눔 및 실습
대상 혼인 3~10년차 부부(한 사람이 신자라면 참여 가능)
회비 부부 18만원 / **신청** www.samok.or.kr/edu
때 6월29일(토)~30일(일) 1박2일
문의 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해외자원활동 띠앗누리27기 모집공고

공동의 집,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네팔을 찐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곳 7/26(금) ~ 8/10(토), 네팔 포카라
모집기한 6/18(화) / **문의** 02) 727-2296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obos.or.kr) 참조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